



■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국회 공청회 사진스케치(2016. 07. 28.)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법률 시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2016년 7월 18일(월), 더불어민주당의 사교육대책 TF와 공동주최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공청회’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함.
- ▲ 사교육걱정의 송인수 대표, 사교육대책 TF 단장 노웅래 의원,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유성엽 의원의 대회사 및 축사로 공청회의 의미를 되새김.
- ▲ 사교육걱정 정책대안연구소 안상진 부소장의 ‘출신학교 차별 실태와 정책 대안’에 대한 발제와 법무법인 로고스 박래형 변호사의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안’ 시안 발표 후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정부 부처 패널들을 포함한 8명의 토론자들의 토론이 이어짐.
- ▲ 이번 공청회를 통해 국회의원, 정부 부처 관계자, 학계, 법조계, 인권위, 대교협, 학부모 등 각계각층이 학력·학벌 차별 실태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의 취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법 제정에 한발 다가서는 계기를 마련함.
- ▲ 사교육걱정은 학력·학벌에 의해 부당한 차별 관행을 타파하고 능력과 실력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공청회의 여러 의견을 모아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안에 반영하고 20대 국회에서 이 법안이 발의·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학력·학벌 차별로 인한 학교의 서열화, 이로 인한 입시 경쟁에 의한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급학교 입시와 기업 채용 시에 출신학교 차별을 금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4월 26일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국민운동’ 출범식을 개최하고, 5월부터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100만 국민 서명운동 및 1인 시위를 전개함과 동시에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시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시안을 가지고 지난 7월 18일(월), 더불어민주당의 사교육대책 TF와 공동 주최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의 오영훈 의원이 진행을 맡은 공청회의 1부에서는 사교육걱정의 송인수 대표, 사교육대책 TF 단장 노웅래 의원의 대회사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상호 의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상호 의원은 축사를 통해 진학 및 채용 등에서 학력이나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서상에 학력란을 없애도록 하는 이번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이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치권에서의 판단과 논의로만 진행되는 방식보다 시민들과 소통하고 학부모들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단체와 함께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공청회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2부의 본격적인 공청회에서는 사교육걱정 정책대안연구소 안상진 부소장의 ‘출신학교 차별 실태와 정책 대안’에 대한 발제와 법무법인 로고스 박래형 변호사의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안’ 시안 발표 및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발제에서는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학력·학벌 차별에 대한 국민의 심각한 인식과 입시 및 고용에서 벌어지고 있는 특정학교의 독식 현상, 고졸자 및 지방대학 학생들에 대한 차별실태, 언론보도 및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차별 등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면서 대안으로서 가능한 여러 제도를 찾아보고 시사점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실태를 바탕으로 박래형 변호사는 고용 및 교육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학력 및 출신학교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학력 및 출신학교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시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어 전남대학교 철학과 김상봉 교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임재홍 교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이성택 사무관, 미양고등학교 이건재 교장,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 최은순 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명채 대학입학지원실장,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권태성 과장, 교육부 대입제도과 정상훈 사무관 등이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공청회에 참석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사교육비와 입시경쟁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고질적인 학력·학벌주의를 지적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의 취지에 한 목소리로 공감했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한국사회의 학벌 문제에 천착하며 <학벌 사회>의 저자로 유명한 전남대학교 김상봉 교수는 저출산 문제에는 대학서열화와 사교육비라는 현실이 있고 권력의 독점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법제화를 통해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한데 과거보다 20대 국회가 관심을 보이는 것이 매우 반가운 일이라 하였습니다. 또한 채용 이후에 학력이나 출신학교 정보를 열람할 수 없도록 하는 문제와 선거에서 후보자가 약력에 학력·학벌을 기재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것의 문제도 다루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임재홍 교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는 한계가 있는 지금의 학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이 입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이성택 사무관은 학벌이 영국의 옥스브리지나 미국의 유명 명문사학에서도 존재하지만, 우리와 비교할 때 심각하지 않은 이유는 이들 나라가 유명 사학 졸업자들에 대한 우대는 있을지언정 나머지 졸업자들이 주요 고용 시장에서 배제되는 정도가 매우 낮고 굴욕감을 초래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잡대라는 표현에서 학력, 학벌, 인종 등에 관한 차별이 오히려 공고화되고 혐오 표현이 확산되는 현상 속에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은 유의미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미양고등학교 이건재 교장은 무기력한 교실 수업의 원인이 서열화된 대학으로 인한 입시 위주의 교육이라고 지적하며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의 의미가 학생부종합전형에 부작용을 미치지 않고 실현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은순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장은 여전히 학벌이 우리 사회의 현대판 신분제이며 가장 강력한 권력기재라고 보고 1996년의 학교운영위원 신청서의 학력기재란이 사라지게 된 사례를 들며 일상에서부터의 학벌 타파 운동을 강조하였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명채 대학입학지원실장은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안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학력의 서열화와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이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학생 부종합전형에서 특목고가 다양한 동아리 활동 및 여러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일반고와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 출신학교를 적지 않을 때 일반고 학생들이 불리해질 수 있어서 우려가 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권태성 과장은 신분제의 대안으로 나온 학력이 가진 함정으로 ‘획일성’을 들고 전문성과 무관하게 학력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에 대한 문제와 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한 여러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교육부 대입제도과 정상훈 사무관은 법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현재 수능이 획일적이기에 학생 부 중심의 대입전형을 권장하는데 대학들이 이를 빌미로 오히려 본고사나 수능을 강행할 수도 있어서 이를 막을 방안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특성화고 졸업자와 사회적 배려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도 법률에 반영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날 공청회장에는 100여명의 학부모와 시민들이 참여해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에 대한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방청석은 시종일관 패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공청회의 진행을 맡았던 오영훈 의원은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최대한 수용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안을 실효성 있게 발의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국회의원, 정부 부처 관계자, 학계, 법조계, 인권위, 대교협, 학부모 등 각 계각층이 학력·학벌 차별 실태의 심각성을 확인하고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의 취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것은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청회에 참석했던 구성원들은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며 힘을 모았습니다.



사교육걱정은 학력·학벌에 의해 부당한 차별 관행을 타파하고 능력과 실력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공청회의 여러 의견을 소중히 모아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안에 반영하고 20대 국회에서 이 법안이 발의·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미 4월부터 벌이고 있었던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100만 국민운동’의 하나로 온·오프라인 캠페인과 서명운동 및 국회 앞 1인 시위를 벌이며 전 국민의 요구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6. 7. 28.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김은중(070-7602-2768/내선번호 510)

○ 첨부자료:

출신학교 차별 실태 및 법안 시안(공청회 후 수정한 법안시안)